

# People & Life

## “5년 가관 독도 분재, 나랑사랑 듬뿍 집집마다 우리꽃 무궁화 키웠으면...”

### ‘전국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 산림청장상 함평 정천수씨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꽃입니다. 시민들이 제가 만든 무궁화 작품을 보면서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새겼으면 합니다.”

최근 ‘전국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에서 산림청장상 수상한 함평 ‘아랑농장’ 정천수(55) 대표는 무궁화 분재에 애국심을 담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고 말한다.

정 대표가 이번 대회에 출품한 작품은 ‘독도는 우리 땅(사진)’이라는 분재를 포함해 모두 5점의 작품이다. 특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제목의 무궁화 분재는 무려 5년여의 시간을 곁들여 만들

어린 작품이다. 국화인 무궁화의 뿌리로 우리나라를 형상화한 돌을 감쌌고, 밑 부분에는 3개의 하트를 표현해 ‘나라 사랑’의 의미를 새겼다. 특히 바닥은 돌로 서도와 동도를 형상화했다.

무궁화 품종은 흙꽃으로 꽃 모양이 단아하고 아름다운 토종 무궁화라 빨리 자라고 줄기가 튼튼하고 붉은 개량 무궁화를 접목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관엽 식물을 키워오면서 무궁화를 연구해온 그만의 노하우가 모두 녹아든 작품이라고 한다.

“화려한 꽃들에 밀려 나라꽃인 무궁화가 점 점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원예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취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구상하고 작품을 만들어 내기까지 무궁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나랑 사랑’을 주제로 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무궁화의 매력은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잡아끄는 단아한 꽃과 씨나 꺾꽂이로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이다. 특히 진땀물로부터 관리만 잘하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강한

생명력을 닮았다고 한다.

“가끔 다른 일 때문에 농장을 찾은 분들이 무궁화 분재를 보고 ‘무궁화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며 놀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팔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 작품을 보고 간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궁화도 한 그루쯤은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손쉽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 국립공원의 야생화

### 독성 강한 줄기·잎 즙으로 자기 방어



**<83> 박주거리** 박주거리는 3m이상으로 자라는 박주거리과의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줄기나 잎을 자르면 나오는 흰색 즙은 작은 곤충이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제주왕나비의 애벌레는 박주거리의 독에 전혀 해가 없어 오히려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용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 한국계 파이터 헨더슨 'UFC LIVE 5' 승리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UFC 파이터 벤 헨더슨(27)이 광복절날 아침, 어머니의 조국 한국에 값진 승리를 선사했다.

헨더슨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 브래들리 센터에서 열린 'UFC LIVE 5' 라이트급 매치에서 짐 밀러(27·미국)에게 3라운드 삼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지난 4월 'UFC 129'에서 마크 보척 꺾은 이후 UFC 2연승이다.

1, 2라운드에서 상대를 압도한 헨더슨은 3라운드에서 심리적 여유를 찾아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었다. 마음에 급해진 밀러가 연속공격을 퍼부어 잠시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었다. 특히 헨더슨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고 승자인터뷰에서는 한국말로 “한국팬들 많이 많이 사랑해요”라며 어머니의 조국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 호남대 6년째 '독도수호 특별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대학이 전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6년째 ‘독도수호 특별전’과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광복 66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광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독도수호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별전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고지도와 공식문서를 비롯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억지주장을 싣고 있는 일본 사회교과서, 독도 생태사진 등 70점이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

고 있다. 또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재구성한 ‘독도의 경제’와 해저 지형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독도 해저 지형도’ 등도 전시됐다.

지난 2005년 ‘일본교과서왜곡특별전’을 개최하면서 ‘독도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호남대학교는 지난 2006년 광주에서 열린 ‘6·15 남북통일대축전’에서 ‘우리 땅, 독도수호특별전’을 열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의 위험성을 알렸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제주 등 전국 순회전시회를 통해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월 광주여고에서 열린 ‘찾아가는 독도 공부방-우리 땅, 독도수호특별전’의 모습.

이와 함께 매년 ‘찾아가는 독도공부방’을 통해 광주·전남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전시와 전문강사 특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창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

들에게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교육자의 사명이라 참교육이다”고 강조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무궁화·태극기로 꾸며진 광주공항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지사장 조진현)는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무궁화와 태극기로 꾸며진 나라사랑 문화공간을 조성, 공항 이용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 전남우정청 송정매일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김성진은 최근 자매결연 시장인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온 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건어물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구호대 의료진 곡성서 의료봉사



해외 자원봉사 단체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소속 의료진 40여명은 지난 14~15일 곡성 옥곡면사무소와 석곡초등학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곡성군 제공>

## 한국인과 결혼한 캄보디아 주부 딸 등록금으로 '독도 한국땅' 광고

캄보디아의 한 주부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돈을 신문 광고비로 사용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10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 10살 된 딸을 둔 도티파덴(30)씨. 그는 지난 6월 17일 캄보디아 신문(N-Sambok)에 ‘독도는 한국 땅, 프레이 비히어는 캄보디아 땅’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실었다.

며느리 씨는 한 달 동안 실린 이 광고의 비용으로 3960달러(428만원)를 냈다. 이 돈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가운데 일부를 딸의 대학 등록금용으로 떼어내 모았던 것이라고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 측은 15일 밝혔다. 그가 독도 광고를 낸 것은 딸에게 부모의 나라에 대한 기억과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강진 드림스타트 '꿈을 찾아 떠난 여행'

강진군은 드림스타트 아동 40명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카자니아 직업체험관 등을 돌아보는 꿈의 여행을 다녀왔다.

강진군드림스타트센터가 ‘꿈을 찾아 떠난 여행’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여행에서 아이들은 첫째 날에는 카자니아 직업체험관에서 아나운서, 소방관, 스튜

어디스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했고, 둘째 날에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등을 둘러보며 꿈과 희망을 키웠다.

“꿈을 찾아 떠난 여행”은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KIA 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동아리' 출범

KIA 타이거즈가 최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KIA 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동아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KIA 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동아리'는 야구동아리의 활성화와 야구 유망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창단됐다.

지난해 설립한 '타이거즈 러브펀드'를 활용, 광주시야동북지협회에서 2팀을 창단한 것으

로 초등부와 중등부 각 1팀씩 구성됐다.

앞으로 기초훈련과 리틀야구 단과의 친선경기를 비롯해 야구 캠프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KIA 타이거즈 임직원은 올해 출범한 '타이거즈 러브펀드' 2기에 전원 참여해 14명의 선수들 기록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적립,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사**

◆환경부  
◇국정감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임재환

###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합죽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광주대 동수지리력 무료 강좌 =27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악·수맥, 나경·임향훈, 비결복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 011-609-8117, 062-670-216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 등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모집**

▲리본공예 수강생 =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2011년 등하교 도우미 봉사자 =19일(금)까지 모집. 중앙초·계림초·장원초·산수초·울곡초 근처, 여성(나이제한 없음), 교통비 등 실비보상.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이태리, 한국 가곡 및 어린이 성악 클래스 =2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음악클래스, 이태리·한국가곡과 어린이 성악 클래스를 통해 노래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접수는 26일(금)까지. 062-520-4243~1, 010-9007-2355.

▲'푸른길창의학교' 하반기 무료 교육생 =31일(수) 접수 마감. 영상 미디어교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미술동화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산수도서관 5층 (사)우리문화에 출연 062-523-0474.

▲외국어전문봉사단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

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성보감, 관상학, 관소리, 민요교실, 고전무용, 침·뜸응용 양주호 노래교실 등. 062-527-7701.

▲한문지도자 자격 연수생 =기초반 주중·주말반 각 25명, 연수 기간 3월 10일~8월 25일. 광주여대·교육대 평생교육원 011-614-4160. 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기우탁씨 별세 계도·장도·병도·해경씨 부친상=발인 1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최선호씨 별세 광·옥·혁·환·수미씨 부친상=발인 1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부음**

▲최정숙 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 김광수 님(남/92세)  
子/子婦: 김중희 / 김중옥, 정남 / 박선자  
장모 / 이서영, 노은숙  
女/婿: 김정신 / 김석원, 정애 / 허원서  
정아 / 박재재

故 김종래 님(여/92세)  
子/子婦: 임종석 / 이정숙, 종운, 기호 / 이영란  
효신 / 송복순  
女/婿: 임영락 / 김중근, 영희 / 양희열,  
형림 / 고병돈

故 류기재 님(여/89세)  
子/子婦: 류옥진 / 이상규, 형훈 / 이정화  
女/婿: 류한주 / 김봉선

故 홍영환 님(남/24세)  
父: 홍창환 모: 신명준  
兄: 홍기훈

故 유현자 님(여/84세)  
子/子婦: 최명덕 / 수복중 교장  
女/婿: 최경남 / 허태길(삼성전지, 정화/이동진(중학교 교사), 영자/문병만(제약회사)  
성호/임순근(대주중공업), 승호/김지겸(국제약품)  
발인: 8월 16일 9시 00분  
장지: 담양 칠성면 선영 • 연락처: 250-4409

故 양복순 님(여/85세)  
子: 조 모子婦: 최정숙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故 김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